

DuPont, 미국 Clean Air상 수상

자동차도료 SuperSolids의 VOCs 방출감축과 비스크래치성 우수해

DuPont의 자동차용 도료인 Supersolids가 친환경적 기술을 인정받아 3월20일, 미국 환경부로부터 Clean Air 우수상을 받았다.

DuPont의 Supersolids는 기존 페인트에 비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방출량이 25% 이상 낮으며, 도장 후 긁힘현상이 60% 이상 적은 제품이다.

DuPont의 부회장인 Ed Donnelly는 Supersolids가 DuPont의 코팅기술자와 자동차기업인 DaimlerChrysler 엔지니어간의 긴밀한 기술개발 끝에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2002년 봄 출시된 신제품은 탑코트 도장과정에서 공기에 유해한 물질 방출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동시에 25% 이상의 VOCs 방출량을 감소시키며 도장과정시 발생하는 특유한 냄새를 50% 가까이 감소시켜준다.

우수한 비스크래치성은 소비자들이 세차 후에도 기존보다 오랫동안 긁힘현상이 적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DuPont의 Supersolids는 자동차 생산기업이 많은 투자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환경보호 효과와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로 전세계로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다임러클라이슬러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자동차용 페인트 생산기업들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용 페인트 생산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8>